

‘1000만 장성 관광시대’ 8부 능선 넘었다

올해 10월까지 881만 방문…지난해보다 4% 증가

장성 방문의 해·체전·황룡강 축제 등 ‘상승 효과’

장성군이 지역 관광 활성화 목표로 제 시한 ‘1000만 관광시대’ 달성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군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장성군의 누적 방문객 수는 약 88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약 34만명) 증가했다.

이 같은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독자적인 관광 프로젝트 ‘2025 장성 방문의 해’ 운영이 주효했다. ‘2025 장성 방문의 해’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장성으로 모여들도록 기획된 연중 행사다.

군은 지난해 말부터 계획 수립 등 준비 단계를 거쳐 올해 2월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프로젝트 추진에 들어갔다.

홍보대사로는 장성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294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감스트(본명 김인직)’를 선정해 논길을 끌었다. 감스트는 방송 광고에 재능 기부 형식으로 출연하는 등 ‘장성 방문의 해’를 알리는데 힘을 보탰다.

정식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은 4~5월과 7~8월 2회에 걸쳐 시행된 ‘쏟아진 장성 여행 경비 지원’이었

다.

타 지역 방문객이 여행 기간 숙박이나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한 뒤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를 증빙하면 1인 최대 10만원, 2인 최대 20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받았다.

‘고객 맞춤형 관광팩스’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3시간·5시간·8시간 코스로 구성돼 있는데, 이용 요금의 50%를 장성군이 지원해 여행객의 부담을 낮췄다. ‘장성 방문의 해’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등 절차를 밟은 뒤 이용하면 되며,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여행의 편의성을 더해 준 ‘명품숲 투어 어게인’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승용차를 이용해 측령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목표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주차 장소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등산을 마친 여행객이 택시를 타고 주차 장소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금은 ‘무료’다. 올해 말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장성 방문의 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올해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방문객 40만여 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밖에도 군은 관광 명소를 여행하고 확인 도장(스탬프)을 찍은 뒤 소정의 경품을 받는 ‘스탬프 투어’, 거리 공연(버스킹)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아울러 장성 최초로 개최된 전남체전·전남장애인체전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모으는 데 크게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장성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인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황룡강 가을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도 ‘장성 방문의 해’ 운영과 맞물려 상승 효과를 냈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지난해 최초로 100만명 방문을 기록한 백양사 등 가을 관광 명소 활성화도 주목된다.

김한중 군수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목

표로 제시했던 ‘1000만 관광시대’ 달성에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군민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협력과 헌신 덕분이다”며 “2026년이 장성 관광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지난 성과를 초석 삼아 더욱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나주,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총 9448t 규모…신동진·새창무 2품종

나주시가 올해 9448t 규모의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한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건조배 매입을 시작으로 산물배, 친환경 벼 등 올해 연말까지 매입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매입 물량은 총 9448t으로 전년 시장격리곡을 제외한 공공비축미 물량 대비 17.7% 증가했고, 품목별로는 산물배 2048t, 건조배 6133t, 친환경 벼 363t, 가루쌀 904t이다.

윤병태 시장은 산포면과 금천면 매입 현장을 방문해 참여 농가와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매입 품종은 신동진, 새창무 2종이며 품종검정제도에 따라 타 품종 혼합 출하시 또는 친환경 벼에서 농약 성분 검출 시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매입 대금은 매입 직후 중간 정산금 4만원(40kg 기준)을 선지급하며 최종 정산금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 기준으로 환산해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산물배는 10월부터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DSC 5개소와 여주농산RPC, 나주평야동강RPC에서 매입을 완료했다.

윤병태 시장은 “깨끗무늬병,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확에 힘써준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무안YD페스티벌, 청년의 열정 속 성황리 폐막

청년이 직접 만든 무안 대표 브랜드 축제 ‘자리매김’

최근 삼합읍 남악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5회 무안YD페스티벌이 청춘의 열정과 감동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무안YD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남악중앙공원 일원에서 개최돼 청년들이 꿈과 열정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퍼포먼스를 마련해 지역 청년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막식에서는 청년들의 꿈을 담은 ‘소망렐프 점등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큰 환호를 받았으며, 에일리과 민경훈, 케이시가 펼치는 개막 축하공연을 통해

YD페스티벌의 포문을 열었다.

거리 퍼레이드에는 정확하게 절도있는 해병대 군악대를 선두로, 각 읍·면 상정하는 티셔츠를 입고 응원 도구로 각각의 특색을 연출한 군민, 청년단체, 관내 대학생, 고등학생들의 행렬이 남악 거리를 가득 메우며 웅장한 퍼레이드를 선보였다.

무대에 모여 바람개비를 이용해 대형 YD 상징물을 조성하며, 피날레를 장식한 이번 거리 퍼레이드는 청년들의 열정과 무안을 사랑하는 군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행렬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또 장르를 불문하고 댄서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YDF 전국 댄스경연대회’에서는 ‘웰보스크루’와 ‘G.O.T’가 청년부와 성인부에서 우승하면서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의 시상금 주인공이 됐으며, 이어진 합합페스타에서는 머쉬베놈과 호미들의 스페셜 넘치로 공연과 싸이버거의 영드림 댄스파티로 주무대에 모인 관람객들에게 열정적인 소통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

김산 군수는 “YD페스티벌은 청년의 열정이 지역의 내일을 밝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무안군이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광양, 건강한 가로환경 조성

활착 관리 등 생육회복 작업

광양시가 도심 주요 노선의 가로수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 가로환경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와 병해충 등으로 일부 가로수의 생육이 저하된 가운데 광양시는 가로수가 휴면기에 들어서는 이번달부터 도시숲관리단을 중심으로 구간별 생육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한 정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매천로·백운로·충무공로 등 최근 식재한 상록수를 중심으로 영양분 보충과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시비 작업을 실시해 활착과 건강한 생육을 돕고 있다.

또 시는 전정 후 뿌리활착제를 활용한 관수 작업을 병행해 상록수의 활착과 회복을 돕는 한편, 도로변 위험 요소를 줄이고 시민들이 더 아름답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결구지 보식, 가로 녹지 내 초본류 식재, 전정·순치기·맹아 제거 등 다양한 정비 작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함평, 4·8 만세운동기념탑

무궁화 등 ‘생활환경숲’ 단장

함평군은 지역 항일정신을 되새기고, 군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녹색 쉼터를 조성했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해보면 4·8 만세운동 기념탑 주변 생활환경숲을 조성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군민과 관광객에게 세계적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함평의 자랑스러운 항일 정신을 전승하고자 추진됐다.

생활환경숲에는 우리 민족의 상징수인 무궁화를 중심으로 블루엔젤, 선주목, 팽나무 등 다양한 조경수와 초화류가 식재돼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의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군은 4·8만세운동 기념탑을 비롯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 휴식이 어우러지는 관광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의 군수는 “생활환경숲은 해보면의 역사적 의미를 품은 공간이자,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쉼터로 조성됐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꾸준히 확충해, 역사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함평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함평=최윤교 기자

영광군 공고 제2025-1212호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 열람 공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9일
영 광 군 수

- 열람사항 :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
- 주요내용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현황 및 문제점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개선방안
-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기 간: 2025. 11. 19. ~ 12. 03.
 - 장 소: 영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 의견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처: 열람기간 및 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열람장소 비치되어 있는 양식에 의거 제출
- 기타사항
 - 관련 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건설교통과(061-350-5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일보가 만드는 사람·문화·관광중심 월간지

전라도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 구독문의 062-370-7080 / 팩스 062-370-7005

나주시 공고 제2025-1832호

(주)송촌아이랜드 토석채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제협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변경 공고

“(주)송촌아이랜드 토석채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제협의)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기 공고(나주시 공고 제2025-1717호)한 바 있으나, 당초 주민설명회 개최시 주민참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나 주 시 장

- 사업 개요
 - 가. 사 업 명 : (주)송촌아이랜드 토석채취 개발사업
 - 나.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북동리 산107-1번지 일원
 - 다. 사업규모 : 431,798㎡(기 획의면적 294,935㎡, 급회 추가지역 136,863㎡)
 - 라. 시 행 자 : (주)송촌아이랜드 대표 나이철, 양진우
 - 마. 사업승인기관 : 전라남도
-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당초 : 2025. 10. 29. ~ 2025. 11. 28.(20일이상,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변경 : 2025. 10. 29. ~ 2025. 12. 12.(20일이상,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나. 공람장소 : 나주시 공원녹지과, 문평면사무소
 - 다.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제협의) 초안
 - 로 환경영향평가(제협의) 초안에 대한 요약서는 나주시 홈페이지(https://www.naju.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원시스템(https://www.eiaas.go.kr)에서도 확인 가능
- 주민설명회 개최

구분	일시	장소	비고
당초	2025.11.07. 10:00	문평면사무소 회의실	
변경	2025.12.03. 10:00	문평면 북지회관 2층	

- 의견제출 및 방법
 - 가. 제출기한 : 2025. 12. 19.(금)까지(공람기간이 완료된 후 7일 이내)
 - 나. 제출방법 : 서면 작성하여(양식은 공람장소에 비치) 공람 장소에 제출
 - 다. 제출의견 : 당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와 그 감소 방안 등의 의견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기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 ☎ 061-339-72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4섬 신안 신의도 찰나를 담다!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와 자초의 성지, 전남 두륜산 대웅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룡산 불희사

광고·사정문의 062)370-7077